



나주시, 에너지자립형 행정

타운 조성 5개년 계획 수립

읍·면·동사무소 등 40개소 건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나주시가 올해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골자로 한 에너지자립형 행정타운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자립형 행정타운이란 읍·면·동사무소, 보건지소 등 공공청사 및 나주시 소유 건물에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농산물거점신도시 유통센터(2011), 나주시청 본청(2013), 빛기란동 주민센터(2015), 종합스포츠파크(2016),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17)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태

양광 1,186㎾, 태양열 248㎡, 연료전지 20㎾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번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에 걸맞는 에너지 자립 도시 나주 구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업지 선정을 위해 나주시는 지난 해 11~12월 두 달간 관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시 소유건물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건물 전수조사를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읍·면·동 복합청사 24개소, 기타 16개소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총 854㎾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

광양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광양시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2018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자격으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50人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마을의 자원 발굴, 주민의 복지증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사업들여 신청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장평가 후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25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들 상호간의 협력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28개소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했었다.

또 지난해 10월 읍면동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 11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